

대학생의 벤처 기업 창업

김 영 일, 박 민 용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I. 서 론

현재 우리 나라는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고도화되고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발전을 위해서 벤처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주요한 방법론으로 제기되어 여러 각도에서 이러한 방법론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의 집약체인 대학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대학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 학생,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각 주제들을 확장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전시켜서 기업을 설립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벤처 기업은 인간, 제품, 계획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 기업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사명감과 동시에 자신감과 자존심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비전을 가지고 아이템화 하려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의 기술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의 전 과정이 인간이라는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대학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치 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와 사회 참여를 목표로 하는 자생적인 조직인 동아리 역시 벤처를 위한 모임들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

본 기고는 이러한 대학 벤처 동아리의 역할과 활동 방향성을 기술하고 벤처 기업의 창업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또한 대학의 연구를 통하여 기업을 설립하여 현재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벤처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II. 대학 벤처 동아리의 역할

대학 벤처 동아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세가지 관점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기업 문화적인 관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6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에 의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하여 성장한 대기업들은 정경 유착이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최근 한보 사태는 이러한 기업문화의 종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 2세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도 사태는 지금까지의 기업 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 구조상의 문제이다. 세계는 현재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대량 정보의 유통은 정보화 사회의 진면목을 경험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과거 중화학, 노동 집약적인 산업화 사회의 경제 구조에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에 기반한 경제로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세 번째는 교육 구조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창의와 혁신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지식 집약적이고 두뇌 집약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또한 개인의 창의를 발휘할 수 없는 제도 교육하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의 집합체이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학습하고 연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론이 대학의 벤처 동아리라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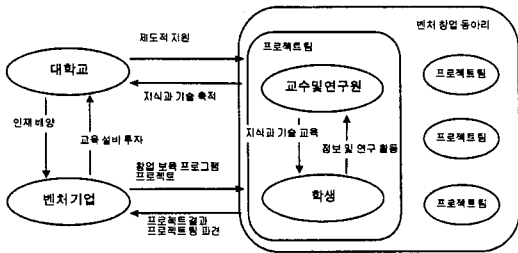
수 있다. 즉, 첫번째 기업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바람직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우수한 기업인을 대학이 선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두 번째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연구한 인재들이 대학의 졸업과 동시에 기업을 창업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이는 벤처 기업의 배태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가 벤처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주요 배태 조직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교육 구조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와 강의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학습에서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경험과 취급하게 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정보들을 통한 다원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의 사회에 실용적으로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는 대단히 증대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모임인 대학의 동아리는 참여자들이 동아리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적인 객체들의 유기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참여자들의 동기부여 정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 목표의 성취도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벤처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는 창의와 혁신에 의한 모험정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동아리들 보다 현재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벤처 동아리는 기존의 대학 동아리와는 상당히 다른 토양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학부 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형태를 탈피하여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학원이 중심이 되는 동아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의 척도는 전문 기술의 확보 정도이기 때문에 벤처 기업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사업을 위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리의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회원들의 교육이나 다른 활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투자하거나 회

원들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여 다소 기업적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익 활동과 수익의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기업 조직과 바람직한 방향의 자본주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 방향성



(그림 1)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 환경

그림 1은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주변 환경들간의 관계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변 환경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설립되었거나 또는 기존의 협력 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대학 벤처 동아리의 세 주체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대학 벤처 동아리의 활동은 그 구성에 있어서 대학의 각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상호 활동으로 나타난다. 즉, 교수는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학생들은 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보 활동과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관계를 통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주제는 사업 아이템으로 정제되고 이러한 아이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 아이템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이러한 대학의 지원을 통하여 설립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대학과 대학 벤처 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유치하여 계속적으로 연구 인력과 사업 인력을 확보하고 대학 벤처 동아리와의 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보다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 인재들이 세우는 우수한 기업들과의 수평적인 연대를 통하여 대학의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대학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과의 연계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서 각 대학의 특성화된 성장을 통하여 각 대학별 차별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얼마나 많은 회사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IV. 주요 대학의 벤처 동아리 소개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설립된 벤처 동아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또 이러한 벤처 동아리들이 하나의 대학에 다수의 단체가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도 있다. 현재 각 대학의 벤처 열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지수로써 지난 7월 11일에 중소기업청의 대학 벤처 동아리 설립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단체는 무려 92개에 달하였고 그 중에 26개 대학이 선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아리의 설립 취지에 있어서 본질적인 벤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대학교의 동아리들을 소개한다.

1. KAIST 비즈니스 클럽

대학 벤처 동아리의 효시는 대전 KAIST의 KBC(KAIST Business Club)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아리는 1996년 5월 4일 대학생 창업 지원 연구 동아리로 출발하여 현재 170명의 회원과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동아리의 3대 사업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학술 사업은 신문 발행, 세미나, 워크숍, 동계 창업 교실, 사업 계획서 경진대회등을 통하여 창업 마인드를 형성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둘째, 사업의 아이টেম을 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독창적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금융, 법률, 인력, 정보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의 사업으로 IP (Information Provider) 사업, Headhunter사업등을 수행하여 KBC 자체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창업 지원 업무를 보조한다.

2.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 “벤처”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 벤처는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업화함으로써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회장과 사무국, 교육국, 사업국, 홍보국의 4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회장은 동아리 전반의 운영에 대한 기획 및 섭외를 담당하고 사무국은 행정적인 처리를 담당하여 각종 강연회를 개최한다. 교육국은 벤처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적인 이론 지식을 교육한다. 사업국은 동아리의 회원 관리 및 구성 팀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홍보국은 학교 내,외의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창업 마인드 확산을 위한 각종 인쇄물의 제작, 이벤트 행사 홍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이 동아리는 벤처 동아리 나아가서 벤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 방안으로 팀별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단위로 팀이 구성되어 사업 계획서의 작성, 벤처 자금의 확보, 개발 및 구현 그리고 사업화로 이어지는 창업 프로세스 전반을 주도적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에는 기획, 시장조사, 가격 정책의 수립, 손익 분기점 분석, 성공 가능성 분석등을 담당하는 기획 담당자, 벤처 자금을 확보하고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섭외 및 재무 담당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

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담당자로 구성된다.

3. 부산대 벤처기업 연구회

부산대학교의 벤처 동아리인 부산대 벤처기업 연구회는 1997년 5월 13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 동아리로 발족하였다. 현재 회원의 현황은 총 84명에 석, 박사과정 학생들이 14명이고 학부 학생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원들을 전공별로 구분하면 공과 대학 59명, 상경 대학 15명, 인문대학, 자연대학 그리고 약학대학의 기타 전공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대 벤처기업 연구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및 학술 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개최, 창업 정보지의 발간, 워크숍 및 기술 창업 교실등을 운영한다. 그리고 기술 창업 정보의 제공 사업으로 기술 창업 및 경영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컨설팅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특히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대행한다. 또한 아이টেম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알맞은 기반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4. 전남대학교 벤처 창업 연구회 “장인 정신”

전남대학교의 벤처 창업 연구회인 장인 정신은 1997년 5월 23일 창립 총회를 통하여 발족하였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혁을 위한 벤처 창업 마인드의 확산과 수준있는 인력 풀의 제공 및 창조적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라는 여타의 다른 벤처 동아리와 유사한 취지 이외에 전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 대학(Virtual University)과 연계하여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웹 환경에 대한 마인드의 확산이라는 다소 독특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전남대학교 벤처 창업 연구회 “장인 정신”은 연구 테마에 대한 팀별 분과 학습을 통하여 각 팀별 연구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테마별 전문가 시스템과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직제를 도입하여 대학 1학년 때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따라서 Junior, Senior, Supervisor, 그리고 Partner로 이어지는 전문가 시스템은 각 단계마다 테마별 주

제 연구 및 발표를 통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5. 연세 벤처 창업 연구회

연세대학교의 벤처 동아리인 연세 벤처 창업 연구회는 1997년 6월 5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37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였으며 현재 4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회원은 법과대학, 문과대학, 자연대학이 각 1명씩 3명이며 상경대학이 10명 그리고 공과대학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동아리의 특징은 종합대학교의 특징을 살려서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한 활동만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6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분과의 자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과들은 정보 통신 분과, 기계 전자 분과, 화공 생물 분과, 건축 토목 분과, 경영 법률 분과 그리고 문화 방송 분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분과의 자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운영국으로 교육국, 사업국 그리고 홍보국의 3개 국이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학원생 중심의 운영과 프로 정신에 입각한 활동을 위해서 자체의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결과 보고서와 논문지로 제작하여 내부적인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자체적인 교육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동아리는 이러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결정을 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해서 수행하는 분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V. 벤처 기업 설립 방법

이 절에서는 대학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또는 여타의 방법을 통하여 어떠한 주제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 선정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의 검토이다. 즉, 어떠한 주제에 대

서 경제성, 시장성, 그리고 경쟁성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시장 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익성 분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사업 계획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달려야 할 도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에 자금을 신청하거나 산업 단지 또는 농공 단지에 입주를 신청할 때 사용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먼저 벤처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벤처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가지의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다. 첫째, 한국 종합 기술 금융(KTB)은 과학 기술처가 관할 기관으로 한국 종합 기술 금융(주) 법 및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출자의 특수 법인으로 업계에서 과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상장 법인이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로 현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5개 사가 있다. 창업 투자 회사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 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용자가 아닌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알맞은 방법이 된다. 세번째는 신기술 금융 회사로 재정 경제원에서 관할하며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산업 은행이 설립한 한국 기술 금융(KTFC),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 설립한 한국 기술 진흥(K-TAC), 삼보 컴퓨터의 한국 개발 투자 금융(KDIFC)이 있다. 이러한 벤처 회사 이외에 초기 모델의 개발비에서 사업의 정상화 까지의 전과정에 걸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 투자 클럽들이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다. 엔젤 투자 클럽은 엔젤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기술과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통하여 적절한 투자 대

〈표 1〉 벤처 캐피탈의 금융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업체 수	연간 지원 실적		상장 업체 수	
		1995	1996	KSE	KOSDAQ
KTIB	1	10,058	13,155	24	45
신기술금융회사	3	7,273	8,244	18	38
창업투자회사	55	10,636	16,447	5	34
계	59	27,967	37,846	47	117

상을 선정한다. 최근 이러한 엔젤 클럽과 벤처 캐피탈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무한 엔젤 클럽, 일진 벤처 캐피탈, 그리고 MC스퀘어를 생산하는 대양E&C(주)도 벤처 캐피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벤처 캐피탈 이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반 금융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가 아닌 용자 형태이고 담보 대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담보를 제시하거나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자금을 얻을 수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리스 회사, 팩토링 회사 그리고 사채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자금이 확보되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 기업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한다.

가장 많은 형태는 주식회사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원의 납입 자본금과 등록에 필요한 준비비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첫번째 절차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공증을 받고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를 실시하여 이사진을 구성한 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다.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을 위한 공장 입지를 선정해야 하며 공장 입지는 계획 입지와 개별 입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 입지는 국가 산업 단지,

지방 산업단지 그리고 농공 단지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조성된 공장 입지이다. 계획 입지에는 별도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하여 입주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입주할 수 있다. 개별 입지는 계획 입지 이외의 입지를 의미하며 개별 입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에 공장의 설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장의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공장을 건설하고 완료되면 공장 설립의 완료 신고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시의 승인 내용대로 공장의 설립이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다.

VI. 우수 벤처 기업 모델

이 절은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들을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벤처 기업의 모델들을 소개한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인 휴렛 팩커드는 193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팔로 알토시에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팩커드가 설립한 회사이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우수한 인력을 소유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젊고 패기에 찬 경영 방식을 가미하여 현재 실리콘 밸리를 이룩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탠포드에서 배출한 또 하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SUN Microsystems사가 있다. SUN은

Stanford University Network의 약어로 이 대학을 졸업한 4명의 공학도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특히 기존의 컴퓨터 구조의 주종을 이루던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기법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인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컴퓨터 구조를 채택하고 탁상의 개인용 컴퓨터의 용량과 기능을 확장하여 워크스테이션으로 발전시킨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최근에는 JAVA 언어를 개발하여 웹 기술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전자 이식 연구소의 대학원생인 문영일이 설립한 벤처 기업이 마크로젠이다. 마크로젠의 사업 아이템은 실험용 쥐에 유전자를 이식하여 종합 병원이나 제약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당뇨병, 홍선암, 스트레스에 대한 유전자 이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계속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 의대의 유전자 이식 연구소는 자체의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자체 보유 기술을 수익 사업화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과학 기술원을 졸업한 박한오 사장이 설립한 회사는 바로 바이오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주)바이오니아 이다. 학창 시절부터 창업을 위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논문의 주제들을 설정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현재 10여개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유전자 증폭 장치 및 관련 소재 개발을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어서 명실 상부한 유전공학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또한 유전 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시약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에서 기술한 기업들 이외에 새로 벤처 기업을 설립하려고 할 때 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은 벤처 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대단히 많다. 매우 널리 알려진 회사들로 세계 초음파 진단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주)메디슨, 호출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팬텍 미디어, 전자 회

로 및 반도체 소자 설계 도구를 생산하는 서두 로직,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하는 퓨처 시스템, 통신 장비 부문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주)인터링크 시스템, 최근에 혁명적으로 사무 환경을 변혁하고 있는 인트라넷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웹인터넷서널(주) 등등 매우 많은 기업들이 우리 나라 경제의 저변을 이루어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수한 기업들의 모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기업들은 저마다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타 회사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기술력을 특화 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이 대학의 연구과정에서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신기술의 접목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 론

현재 세계는 정보화 사회의 대 격변기에 있다. 이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와 혁신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 정신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변혁기의 혼돈 상태를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응전략으로써 벤처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식과 기술의 집약체인 대학의 역할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에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 창의와 혁신에 의한 가치의 창조를 위한 벤처 동아리를 확산시키는 것은 벤처 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수 벤처 기업의 모델에서 성공하는 벤처 기업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연구와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의 아이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지식과 기술의 확보가 절대적이기 때문이

다.

현재 각 대학에 자생적으로 결성되고 있는 벤처 동아리의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벤처 붐이 한때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매우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생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일, “대학 창업 동아리”, 공학 교육과 기술 제 4권 3호, 1997.
- [2] 이인식, “하이테크 혁명”, 컴퓨터월드 1987.
- [3] 안택식, “회사법 해설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3,
- [4] 박춘엽,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 분석”, 도서출판 예음, 1986.

저 자 소 개



김 영 일

1967年 1月 24日生
 1991年 2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93年 8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84年 3月~현재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현재 연세 벤처 창업연구회 회장
 주관심 분야: ATM망 스위칭 시스템 구조, ATM망 관리



박 민 용

1950年 9月 6日生
 1973年 2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77年 2月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석사
 1982年 3月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박사

1982年 8月~현재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현재 연세 벤처 창업연구회 지도교수
 주관심 분야: 지능제어 및 계측 시스템